

#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2.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 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2,780천 km <sup>2</sup>	G D P	5,417억 달러 (2016년)
인구	43.6 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 D P	12,425달러 (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Argentinian peso (Ps)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4.8 (2016년)

- 아르헨티나는 남미 남부 및 남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브라질, 우루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12배 수준이며, 인구는 2016년 기준 43.6백만 명임.
-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팜파스 대평원과 세일가스, 세일오일,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 및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5년 12월 출범한 마크리 (Macri) 정부는 친시장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중이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2017년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정치불안 가능성이 상존함.
- 고물가 지속,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 삭감, 부정부패 만연, 치안 불안,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지연 등의 영향으로 사회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마크리 정부는 경제성장 및 교역확대를 위한 개방 정책 추진을 통해 미국, EU 및 브라질, 칠레 등 주변 교역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 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2.4	-2.5	2.5	-1.8	2.7
재정수지 / GDP	-3.0	-4.0	-6.6	-7.1	-7.4
소비자물가상승률	10.6	38.1	26.5	41.3	23.2

자료: IMF, EIU.

#### □ 2017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농산물, 원유 및 천연가스 등) 및 인접국 브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후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브라질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2016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 브라질 경제침체, 민간소비 및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1.8%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2015년 기준 아르헨티나 수출의 18.1%, 수입의 23.7%를 차지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브라질의 경제 (2년 연속 3%대 마이너스 경제성장) 회복이 매우 중요함.
-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브라질의 플러스 경제성장 시현, 민간 소비 증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시장의 신뢰 회복 및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은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극심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2017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 재정수지 적자 지속

- 마크리 정부는 보조금 축소 등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 감축 노력을 하고 있으나, 농산물 및 공산품 수출세 폐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에 따라 재정수입이 감소함.
  - 농산물에 대한 수출세 수입은 아르헨티나 정부세입의 1/4 이상을 차지하여 정부재정의 주요 수입원 역할을 하였음.

- 2015년 12월 무역자유화 등을 위해 대두는 단계적으로 수출세가 인하 (35%→ 30%, 이후 매년 5%씩 인하)되고, 옥수수(20%), 밀(23%), 쇠고기 (15%), 공산품(5%) 등은 수출세가 전면 폐지됨.
- o 이에 따라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7%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고인플레이션 지속되나, 상승률은 둔화 예상

- o 전임 페르난데스 (Fernandez) 정부 시절 포퓰리즘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화폐발행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등함.
- o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에너지 및 교통 부문 보조금 삭감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폐소화의 급격한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
- o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40%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고물가 지속이 전망되나, 상승률은 20%대 초반 수준으로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원자재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o 아르헨티나는 원자재(농산물, 원유·천연가스 등)가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기후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자재가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은 수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 기업경영환경 취약 및 인프라 미비

- o 아르헨티나의 2017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116위에 불과하여 기업경영환경이 취약한 수준임.

- 또한 아르헨티나는 도로, 전력 등 주요 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2017) 인프라 부문에서 아르헨티나는 138개국 중 85위에 불과하며, 세부 항목별 순위는 도로 103위, 전력공급 119위 등임.

## 나. 성장 잠재력

### □ 부존자원 풍부

- 아르헨티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팜파스대평원과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광대한 국토를 보유한 농업대국이며, 셰일가스(매장량 세계 2위), 셰일오일(매장량 세계 4위), 광물자원, 수산자원 등 부존자원이 풍부함.
-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 남미 2위의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토의 60% 이상이 비옥한 경작지인 평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르헨티나는 2015년 인구의 10배인 약 4억 명을 먹일 수 있는 1억 2,500만 톤의 곡물(대두, 옥수수, 밀 등)을 생산한 세계 곡물창고 중 하나로, 대두유 및 밀가루는 제1위, 대두는 제3위 수출국임.
- 또한 금, 은, 동, 리튬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자본 부족 등으로 전체 국토의 75% 지역이 미개발된 상태로 개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비교적 양호한 인적 자원 보유

- 보편적 의무교육을 통해 중남미 국가 중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대다수가 유럽계 백인으로 국민들의 평균 교육연수가 높아 문맹률도 선진국 수준인 1.9%로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중등교육 등록률은 106.3%로 세계 29위, 고등교육등록률은 80%로 세계 16위 수준임.

## 다. 정책성과

### □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적극 추진

- 2015년 12월 출범한 마크리 정부는 경제왜곡\* 시정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환율 단일화 실시, 보조금 삭감, 수출세 폐지, 외국기업의 과실송금에 대한 외환통제 철폐 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중임.

- \* 외환시장 개입 및 외환통제, 수입규제, 가격통제 및 보조금 정책 등
-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로 이원화된 환율이 단일화되면서 공식환율로 고평가된 폐소화가 대폭 평가절하\* 되었으며, 마크리 정부는 이러한 환율상승을 용인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함.
- \* 환율 단일화 정책 시행 전 공식환율은 달러당 9.8페소(암시장환율은 달러당 14.6 페소) 수준이었으며, 환율 단일화 정책 이후 폐소화 가치는 50% 이상 하락함.
- 마크리 정부는 에너지, 교통, 수도 등에 대한 보조금 삭감 정책을 시행하여 GDP의 1.5%에 해당하는 재정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됨.
- 전임 정부 시절 시행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사전수입신고 및 수입대금 결제시 중앙은행 사전승인 등 수입규제조치를 폐지하고, 외국기업의 과실송금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2016년 11월 민관협력사업(PPP)법을 신규 제정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확대와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함.

#### □ 국제시장의 신뢰 회복 도모

- o 아르헨티나는 2016년 2월 헤지펀드와 채무상환 합의로 디폴트 상황이 종료되고, 2016년 4월에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165억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에 성공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 계기를 마련함.
-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채무에 대한 디폴트 선언 이후, 2005년 및 2010년 2차례에 걸쳐 채권자 93%와 채무협상을 완료하였고, 2014년 5월에는 파리클럽과도 채무상환에 합의하였음.
- 다만, Elliot 등 채무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일부 헤지펀드의 소송제기 및 미국 대법원의 채무 전액 상환판결(2014년 6월)로 기술적 디폴트 (Selective Default)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2016년 2월 이들 헤지펀드와도 채무협상을 완료함.
- o 마크리 정부는 2006년 이후 10년 만에 IMF와 연례협의를 재개하였으며, GDP, 소비자물가지수 등 정부 통계에 대한 IMF의 신뢰를 회복함.
-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및 왜곡된 경제정책을 고수한 과거 정부가 IMF와의 연례협의를 거부함에 따라 2006년 이후 IMF 연례협의를 중단됨.
- 마크리 정부는 통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통계시스템 개선, 통계청장 교체 및 통계조작 연루자들을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고, IMF는 아르헨티나의 통계가 국제수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함\*.

- \* IMF는 2016년 11월 아르헨티나 통계 불신뢰 선언(Declaration of Censure and Statement of Concern) 철회를 발표함.

### □ 그러나 정책성과의 가시화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마크리 정부는 취임 이후부터 시장 친화적 경제 정책 및 투명성 제고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IMF도 마크리 정부의 이러한 개혁 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부터 장기간 지속된 극단적인 보호주의 및 시장왜곡 등에 따른 심각한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마크리 정부의 정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시현, 40%를 상회하는 고물가 지속, GDP 대비 7%에 달하는 재정수지 적자 기록 등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 마크리 정부는 2016년 초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0~25%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4%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정부 목표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sup>e</sup>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12,070	-7,985	-15,941	-12,718	-19,318
경 상 수 지 / G D P	-2.0	-1.4	-2.5	-2.4	-3.2
상 품 수 지	4,682	5,980	-414	2,371	2,658
수 출	75,975	68,409	56,762	57,030	62,381
수 입	71,293	62,429	57,176	54,659	59,723
외 환 보 유 액	28,143	29,017	23,417	33,348	39,063
총 외 채 잔 액	154,770	161,010	168,522	182,376	203,080
총 외 채 잔액 / G D P	25.3	28.6	26.7	33.7	34.1
D . S . R .	19.5	18.6	26.0	28.1	29.3

자료: IMF, EIU, OECD.

## □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아르헨티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 중반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외환보유액 확대 전망

- 2015년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23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9% 축소되었으나, 2016년에는 외환보유액이 33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 친시장 경제정책 추진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에 따른 FDI 확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이 2015년에는 3.2개월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에는 4.6개월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 외채규모 증가추세 지속 예상

- 아르헨티나는 2016년 16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경상수지 적자 보전과 인프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채가 확대되고,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외채규모가 과중한 수준은 아님.
- 마크리 정부는 2017년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외채도입을 추진중이며, 조달된 자금의 절반은 재정수지 적자 보전에, 나머지는 만기도래 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임.
- 마크리 정부는 2017년 1월 씨티은행, 도이치뱅크, HSBC 등 6개 은행으로부터 60억 달러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7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음.
- 2016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채증가에 따라 D.S.R.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Ⅲ. 정치 · 사회 동향

#### 1. 정치 안정

##### □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중이나, 정치불안 가능성 상존

- 2015년 11월 실시된 대선에서 야권 연합후보인 공화당(PRO)의 마크리 후보가 당선되면서 12년 만에 우파 정권이 탄생함.
- 키르츠네르(Kirchner), 페르난데스(Fernandez)로 이어지는 12년 좌파 부부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우파 세력이 집권하게 됨.
- 마크리 정부는 출범 초기 60%대의 높은 국민지지율을 바탕으로 야권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시장 친화적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운영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하고,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출범 초기와 같은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불안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
- 정의주의당 (Partido Justicialista) 등 야당이 상원의 79%(57/72석), 하원의 65%(166/257석)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등의 추진에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임.
- 또한 2017년 10월 상원 72석 중 1/3, 하원 257석 중 1/2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정운영상 야당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 사회 불안정 지속

- 아르헨티나는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치안상태가 악화되어 납치, 강도, 날치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정 부패가 만연함.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지수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지표에서 138개국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세부 부문별로는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 115위, 조직범죄 106위, 비정기적 지급 및 뇌물 107위, 기업의 윤리적 행동 132위임.
- o 2016년 실업률은 9.2% 수준으로 전년 6.6% 대비 상승하여 실업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9월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빈곤율이 32.2%에 달한다고 발표하여 사회불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2016년 폐소화 가치하락 및 고인플레이션 등으로 빈곤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o 물가급등과 보조금 삭감 등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추진을 지지하여 왔으나, 2016년 말까지 정책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차츰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30~40%에 달하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2분기 단체 임금교섭시 노조가 고물가에 상응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3. 국제관계

#### □ 미국, EU 및 주변국들과 관계 회복 적극 추진

- o 마크리 정부는 취임 이후 친시장주의 및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면서 미국, EU와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1997년 클린턴 대통령 방문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 19년 만인 2016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였으며, 2016년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정상들도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마크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함.
- 또한 마크리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는 2003년 이후 13년 만에 2016년 1월 다보스 경제포럼에 참가하였으며, 2016년 7월 유럽을 순방하는 등 미국 및 EU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 계기를 마련하였음.
- 다만,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시 무역확대와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아르헨티나는 2016년 6월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옵저버로 가입하여 이념 대립보다는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남미 5개국 관세동맹이며,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 □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 2014년 아르헨티나-중국 협력관계가 '포괄적인 전략동맹 관계'로 격상되고, 11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페소화 통화스왑이 체결되는 등 아르헨티나는 전임 정부시절부터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음.
- 중국은 2015년 기준 아르헨티나의 제2대 수출국(9.1%)이자 제3대 수입국(16.4%)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임.
-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중국과 2016년 정상회담(9월) 및 외교장관 회의(5월)를 개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 또한 중국은 2016년 9월 항조우 G20 정상회의에서 2017년 초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초대할 바 있으며, 2016년 12월에는 아르헨티나 내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 국가와 갈등 가능성 잠재

- 마크리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베네수엘라의 정치 탄압을 비난하며 남미공동시장에서 베네수엘라를 축출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좌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일부 남미 국가와는 마찰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채상환태도는 개선 추세

- 아르헨티나는 2016년 2월 헤지펀드와 채무조정 합의로 기술적 디폴트 상태가 해소되는 등 마크리 정부 출범 이후 외채상환태도가 개선되고 있음.

- 마크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0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연체경험 (Payment Experience)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o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2001년 1,000억 달러의 대규모 디폴트 선언, 2014년 기술적 디폴트 발생, 파리클럽과 9차례 채무재조정 경험을 가지고 있는 등 과거 취약했던 외채상환태도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성실한 채무상환 이행 등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2. 국제시장평가

### □ OECD, 6등급으로 상향조정

- o 2016년 10월 OECD는 아르헨티나의 개혁정책 추진, 국제신인도 향상, 중남미 3위의 경제규모, 연체경험 개선 등을 감안하여 기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아르헨티나의 2016년 GDP는 5,417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제3위 경제규모이며, OECD 연체경험 등급도 한 단계 개선되었음.
- 상기 OECD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등급 상향조정은 2002년 이후 14년 만으로, 일부 유럽국가들은 아르헨티나의 여러 가지 개선사항 감안시 지금이 등급을 상향조정할 적기라고 언급함.
- o 2016년 상반기 국제신용평가 3개사가 일제히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기술적 디폴트에서 'B' 또는 'B-'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등급전망은 국제신용평가 3개사 모두 'Stable'을 부여하고 있음.

### □ 해외차입능력 향상

- o 국제신인도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에 힘입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차입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마크리 정부는 2017년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외채도입을 추진중이며, 2017년 1월 6개 은행으로부터 60억 달러 차입계약을 체결하였고, 7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음.

### □ 미 수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단기 및 중기 거래 지원 가능 발표

- o 2016년 9월 미 수은은 15년간 지원을 중단했던 아르헨티나에 대해 공공, 민간 부문에서 단기(1년 이하), 중기 (1년 초과 7년 이하) 거래 지원 재개를 발표함.

- 상기 조치는 마크리 정부의 의미있는 개혁에 기인하며, 미 수은은 양국간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에 필요한 금융수단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 (2016.10)	7등급 (2015.10)
S&P	B- (2016. 5)	SD* (2014. 7)
Moody's	B3 (2016. 4)	Caa1 (2015.11)
Fitch	B (2016.10)	B (2016. 5)

\* SD (Selective Default)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년 2월 15일 (북한과는 1973년 6월 수교 후, 1977년 6월 단교)
- 주요 협정: 문화협정(1970), 투자보장협정(1996), 원자력협력협정(1997), 범죄인 인도조약(2000), 과학기술협력협정(2003), 항공협정(2004),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2004), 경제무역협력협정(2006), 교육문화협력협정(2007), 형사사법공조조약(2013)
- 해외직접투자현황: 2016년 9월말 기준 60건, 185,841천 달러 (누적)
- 교역규모
  - 아르헨티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9위 수출대상국이자 제5위 수입대상국으로, 교역규모는 16억 달러 수준으로 양국간 경제규모 감안시 크지 않음.
  -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영상기기 등이며, 수입품은 식물성물질, 금은 및 백금, 곡실류 등임.

<표 4> 한·아르헨티나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1,075	754	1,047	796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영상기기 등
수 입	1,195	501	699	833	식물성물질, 금은 및 백금, 곡실류 등
교역규모	2,270	1,255	1,746	1,629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아르헨티나는 2016년 원자재 가격 하락, 브라질 경제침체 등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보조금 삭감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 4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에도 20%대의 고물가가 지속되나,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나, 수출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7%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수년간 수출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 중반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마크리 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운영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지율 하락, 여소야대 정국 상황, 2017년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불안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됨.
- 마크리 정부는 출범 이후 친시장 경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IMF도 이러한 개혁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정상화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EU 국가 등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마크리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 EU 및 주변국들과 관계 회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디폴트 상황 종료와 마크리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국제신인도, 외채상환태도, 해외차입능력이 개선되는 등 아르헨티나에 대한 국제시장의 평가가 크게 향상됨.

선임조사역 박대원 (☎02-6255-5705)  
 E-mail: parkdw@koreaexim.go.kr